

南北韓 文化交流의 增進 方案

이 광 구*

<목 차>	
1. 序	5. 北韓의 藝術
2. 北韓 學界 現況	6. 南北交流 方案—藝術分野
3. 北韓 學界의 過去	7. 南北交流 方案—學術分野
4. 北韓의 傳統文化 研究	8. 結 論

1. 序

世界 第2次 大戰이 종식된 후 한 나라가 양분되는 분단국이 3나라가 있었다. 이들이 분단된 조건은 다르나 원인은 모두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양극화하는 세계정세의 희생물이었던 것이다. 이를 3개국에서 독일은 자유진영에 속한 서독에 의해 동독이 흡수되는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었고 월남은 공산진영에 속한 북월맹에 의해 무력으로 통일되는 방식으로 한 나라가 되었다. 3개 분단국에서 유일하게 통일과업을 완수하지 못한 나라로 남은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의 통일은 따라서 한민족의 숙원인 동시에 세계사의 숙제이기도 한 것이다.

한국은 오늘날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이라는 사항 이외에도 분단이 가장 철저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다. 독일의 경우 통일이 되기 이전에도 사람은 물론 서신의 왕래가 있었고 방송을 서로 들을 수 있었으며 특히 친척과 친지 간의 연락이 있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 6·25 사변으로 인하여 남북은 더욱 철저한 장벽을 쌓고 친지는 고사하고 친부모자녀간의 소식도 들을 수 없다.

우리 나라는 통신이 두절된 분단만이 아니라 6·25사변이라는 죽고 죽이는 전쟁을 치른 사이이기 때문에 분단상황에 적개심마저 더해져 있다. 더욱이 북한과 남한은 자기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상대방을 비방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북에서는 남한을 미제국주의의 앞잡이 팽쇼로 규정하여 타

*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도의 대상으로 선전하였고 남한에서는 북한을 괴뢰집단으로 규정하고 반공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단 적계심 그리고 반체제교육을 통하여 남과 북의 상호불신감은 세계에 유래가 없는 특이한 현상을 초래하여 그 해결이라는 것이实로 난제 중의 난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세가지에서 낙관적인 점을 갖고 있다. 하나는 우리의 민족사에서 통일된 나라도 있었던 역사가 길다는 것이다. 통일의 역사를 신라통일로 한다면 우리는 1천년 이상의 통일국가의 경험에 있는 것이고 만일 통일을 발해의 멸망부터라 한다면 우리는 5백년 이상의 통일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러한 통일의 역사에 비한다면 분단의 역사는 10분의 1 내지 20분의 1에 불과한 것이 된다.

둘째 남과 북을 갈라놓은 것에 큰 부분이 감상적인데 기초를 두고 있다, 감정은 인간행동을 자극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격하여지는 성향을 가졌으나 냉정한 이성과는 성격이 달라 또한 쉽게 감퇴되기도 하는 것이다.

셋째로 낙관할 수 있는 것은 국제정세가 분단만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통일로 몰아주는 것이다. 분단국 3개국에서 남은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통일을 독촉하는 것 이외에 우리나라 분단의 주역을 담당하였고 6·25 사변을 주도한 장본인으로 여겨온 공산국가의 해체라는 세계사에 보기도 문 변화는 우리나라의 통일을 촉진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나라의 통일이 오히려 예상치 않게 급격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 특히 금년 12월 초에 있었던 남북총리회담에서 이룩한 남북 합의문에 의해 통일이 가까워왔다는 것과 앞으로의 남북관계가 어떤 속도로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남북관계가 늦게 호전되든 또는 빨리 통일이 이루어지든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에서 분단의 아픔 이상으로 심한 진통을 경험하여야 하고 대가를 지불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는 분단 40년간에 양쪽이 어느만치 먼 거리를 갔었는가를 정확하게 친단하고 이 거리를 매기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를 숙고하는 과정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명제에서 본고는 특히 학술이라는 분야를 생각하려 한다. 학술이란 대학 강단에서 이루어지는 학문분야만이 아니라 학문이외에 예술분야까

지를 포함하여 넓은 의미로 학술을 생각하였다. 학술은 사상과 체제의 기초가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학술의 교류와 진단은 정치적 통합 경제적 통일에 앞서야 하는 분야로서 남북통일의 기반이 되는 영역이라 하겠다.

남북한간의 학술교류를 모색하기 위해 이곳에서는 북한의 학계의 현황과 학계가 진전되어온 사항을 보고 특히 남북이 접근하기 쉽다고 생각되는 전통문화에 관한 연구사항을 개관하기로 한다. 그리고 학술영역에 따라 구체적인 교류방안을 모색하여 보기로 한다.

2. 북한 학계 현황

북한의 학계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최고교육기관인 대학과 연구소를 이해하여야 한다. 북한의 대학과 연구소는 소련식 제도를 모방하여 남한에서는 약간 생소하다 하겠다. 대학에 진학하기까지 북한에서는 4년제 인민학교 5년제 중학교 그리고 2년제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북한의 최고학부이며 유일한 종합대학이 金日成綜合大學이다. 평양시 대성구역 용남동에 위치한 이 대학은 1946년 10월에 설립되었다. 그간 증설을 거듭하여 1980년 현재 13개 학부 50여개의 학과를 두고 80여개의 강좌를 설치하였다. 이 대학에 종사하는 교원은 약 1천 2백명이며 학생수는 1만 2천 명에 달한다. 학생들의 수험년한은 5년이다. 이 대학에는 10개의 연구소가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유일한 종합대학이기에 정무원의 교육위원회에 직속되고 교육의 내용은 고등교육성의 지시를 받는다. 그리고 4명의 부총장중 제 1 부총장은 노동당 대학당위원회의 책임비서가 겸하고 있어 대학내의 사상 문제를 지휘감독하고 있다. 다른 부총장은 교무부총장, 과학부총장, 그리고 경리부총장이다.

13개 학부는 크게 둘로 나뉘어 하나는 5년제 사회과학부이고 하나는 6년제 자연과학부이다. 사회과학부에는 역사학부, 철학부, 정치경제학부, 법학부, 조선어문학부, 외국어문학부가 있다. 자연과학부에는 물리학부, 수학부, 역학부, 생물학부, 지리학부, 화학학부 그리고 자동화학부 등이 포함된다.

학부에 속한 학과는 50여개로 중요한 것을 들어보면 조선노동당역사학과, 조선역사학과, 세계역사학과, 조선고고학 및 민속학과, 법학과, 철학과, 정

치경제학과, 통계학과, 계획경제학과, 국가선설학과, 조선문학과, 한문학과, 도서관학과, 신문학과, 러시아문학과, 조선어학과, 중국어문학과, 독일어문학과, 불어문학과, 에스빠냐문학과, 물리학과, 핵물리학과, 라디오물리학과, 수학과, 역학과, 화학과, 방사학과, 동물학과, 동물생리학과, 식물학과, 식물생리학과, 토양학과, 기상수문학과, 지리학과, 측지지도학과, 자동화학과, 지구물리탐사학과, 지구화학과 등이다.

김일성종합대학에 속한 10개의 연구소는 역사연구소, 경제학연구소, 철학연구소, 법학연구소, 어문학연구소, 물리학연구소, 생물학연구소, 화학연구소, 지질학연구소, 그리고 동위원소연구소 등이다.

북한에는 김일성종합대학 이외에 전문대학이 있다. 전문대학은 공업대학, 공장대학, 의학대학, 농수산대학, 사법대학, 교원대학, 인문대학, 특수계대학 등이다.

공업대학은 김책공업대학, 평양건설대학, 평양운수대학, 평양경공업대학, 평양기계대학, 함흥화학공업대학, 함흥수리대학, 함흥동력대학, 청진광산금속대학, 평남석탄공업대학, 사리원지질대학, 구성기계대학, 회천체신대학, 평양철도대학, 황주식료공업대학, 신의주경공업대학, 청진선박대학, 대관공업대학, 천내공업대학, 룽성식료공업대학 등이다.

공장대학은 공업대학보다 격이 낮은 대학으로 전북한에 56개가 있다. 이들도 명칭은 공업대학이라 한다.

의학대학은 평양의학대학을 위시하여 함흥, 해주, 청진, 강계, 신의주, 원산, 사리원, 개성, 혜산 등에 의학대학이 있고 함흥에 약학대학이 있다.

농수산대학은 원산농업대학을 위시하여 해주, 사리원, 강계, 신의주, 함북, 자강, 남포, 함흥 등에 농업대학이 있고 혜산농림대학, 순천수의축산대학, 평성수의축산대학, 북청과수대학, 원산수산대학, 남포수산대학 그리고 나진해운대학 등이 있다.

사법대학은 김형직사법대학을 위시하여 전북한에 24개교가 있다. 사법대학 이외에 교원대학이 있으니 이것은 전북한에 11개교가 있다. 특수대학의 하나로 인문대학이 있다. 이것에 속하는 학교는 평양외국어대학, 청진외국어대학, 원산경제대학, 평양무역대학, 평양연극영화대학, 평양음악무용대학, 평양미술대학, 평양체육대학 등이다. 기타 특수대학으로는 평양이과대학, 국제관계대학, 평양상업대학 등이 있다.

이러한 정규 5년제 대학 내지 2년제 전문대학 이외에 특수학교로 공산대학, 김일성고급당학교, 인민경제대학 등이 있다. 모든 학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김일성종합대학에는 주간부 이외에 야간부와 통신학부가 있어 주간부학생이 1만 2천명이고 야간과 통신학부가 5천명이나 된다.

이상의 학교를 종합하면 북한에는 김일성종합대학 이외에는 모두 전문대학으로 특히 이공계 대학이 많고 이것이 각처에 고루분포되어 있으며 지역적 특성에 맞는 대학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초등교육을 중요시하여 사법대학이 중요 도시마다 있고 교원대학도 있다. 특수교육을 행하는 곳을 특수대학으로 하고 당학교가 있는 것이 소련식과 같다.

북한의 학계는 종합대학이나 전문대학만이 아니라 연구소를 포함한다. 오히려 북한의 학계동향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는 대학과는 별도로 독립된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논문집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이곳에서 말하는 연구소란 김일성종합대학에 부설된 연구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중요한 연구는 과학원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1952년 10월에 설립되었다. 그후 1964년 사회과학원으로 발족되어 이곳에 인문계 사회계의 여러 연구소를 포함하고 있다.

연구의 업적으로 보아 북한에서는 대학이 교육을 전담하고 있으며 사회과학원이 연구를 주로 담당하여 연구소와 대학이 분업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아 보인다. 이것은 사회과학원이 없고 연구소가 발달하지 못한 남한에서 연구도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대조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이러한 현상은 예술분야에서도 볼 수 있다. 문인이나 예술가도 대학에 근무하는 사람이 활동을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동맹 예술인동맹 등의 전문인 조직이 있고 이곳에서 연구와 공연을 계속하는 것이다.

3. 북한 학계의 과거

해방이 되던 당시 으레히 지식인이면 공산주의자라고 하리만치 지식인 학자 예술가에 좌경한 사람이 많았다. 따라서 북한에 정권이 수립될 무렵 많은 학자 지식인 예술가들이 북한으로 월북하기도 하였다. 물론 공산주의를 신봉하였으나 북한의 현실이 맞지 않아 북한에서 남하한 학자도 있었다.

북한이 해방에서 부터 오늘날까지 발전시켜온 학계의 역사를 크게 4단계

로 나눌 수 있겠다. 첫째는 1945년에서 약 10년간 사회주의를 흡수 소화하는 시기이다. 둘째는 1953년 휴전 이후 약 10년간 전후 복구시기이다. 셋째는 196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까지로 이른바 김일성주체사상이 확립되는 시기이다. 넷째는 김정일을 후계자로 추대하기 위한 후계자 옹립 작업시기이다.

제 1기인 건설기에는 학교를 위시한 단체를 정비하기 위해 소련에 거주하는 재소교포들을 많이 등용하여 이들에게 러시아식 제도를 정비케 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을 위시하여 각종 대학들이 기초를 잡고 이에 합당한 법령을 정비하여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이 시기이다.

이러한 제도나 시설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정립하기 위한 이념의 선전과 계몽이었다.

예컨데 문학에서의 활동을 보면 이른바 프로레타리아 작가를 자칭하는 월북작가들이 평양에서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을 결성하고 반봉건 반민족적인 유산을 타파하고 사회주의 전선을 목표로 하는 “전국사상동원운동”에 앞장섰던 것이다(전영민, 1990:55).

학술과 문예활동이 사회주의적으로 방향을 잡고 소련식 제도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주로 활동한 사람들은 남한에서 월북한 학자나 예술가들이었다. 따라서 공산주의 노선을 취한다 하더라도 한국적인 특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다.

1950년에서 3년간 계속된 6·25사변은 북한에 더 큰 타격을 주었다. 한 예로 김일성종합대학의 경우 6·25사변이 발발하자 재학생과 교직원 전원이 군인이 되어 정치공작대원으로 전선에 배치되었고 일부 특수층 자녀들은 소련과 동구 여러 나라에 유학을 갔다. 대학이 복교가 되는 것은 1952년 휴전회담이 진행되면서부터이다. 군에서 특수부문에 종사하는 이외의 학생이 복교하여 학교가 다시 운영되는 것이었다.

휴전 이후 복구기를 제 2기라 하였고 이 시기는 1953년에서 1960년대 중반까지 계속된다. 이 시기는 몇 가지의 시대적 특성을 갖는다. 첫째 들 수 있는 특징이 전후 복구운동으로 이것을 “천리마운동”이라 한다. 이것은 파괴된 가옥과 도시를 재건하고 경제를 재건하는 전국민의 대대적인 운동으로 북한은 말하자면 기적적인 발전을 한다. 지식인과 예술인도 “천리마운동”에 동원되어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기적적 전후 복구와 병행하는 사회주의 건설을 용이하게 할 수 있

었던 것은 남한에서 이주한 남로당 계열의 정치적인 숙청과 이와 동시에 진행된 월북 지식인과 예술인에 대한 대대적 숙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월북인 사의 숙청이 이 시기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라 하겠다.

학문에 있어서 이 시기에 특기할 것은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가 진전한 것이다. 국학분야라 할 수 있는 역사 민속 특히 고고학 방면의 연구가 활발하였다. 고고학은 이 시기가 가장 전성한 시기로 대규모 발굴이 전북한에서 진행되었던 것이다(임효재, 1990:104).

다음 세째 단계는 김일성주체사상 확립기로 196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까지 계속되는 시기이다. 북한은 정통 맑스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 건설을 지나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사상계는 물론 학문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김일성의 혁명적 투쟁을 찬양하고 김일성을 신격화하는 방향으로 진전한다.

한국의 역사는 프로레타리아의 계급투쟁에 의한 역사일 뿐만이 아니라 김일성의 가문에 의하여 근세사가 이끌어지는 것이 되며 항일투쟁은 김일성에 의하여서만 주도된 것이다. 이러한 김일성 유일사상에 의한 민족사관은 현대사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사에 까지 소급하여 고고학 선사시대 고대사도 주체사관에 의해 재정리 된다.

문예분야에 있어서도 “주체의 문예이론”이 정립되면서 민족적 문예형식을 취하게 된다. 이것은 자기 인민의 정서와 감정에 맞게 문학 예술을 창조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표현방식은 민족적 정서에 바탕을 두며 내용은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체적 문예를 대표하는 것이 “괴바다” “꽃파는 처녀” “한 자위 단원의 운명” “조선의 노래” 등이다. 이 시기의 소설로서 특기할 것은 김일성의 생애를 소설화한 “불멸의 역사”이다(권영민, 1990:57).

제 4기는 1980년 이후에 전개되는 시기로 이 시기의 특징은 김정일의 우상화 운동이라 하겠다. 이 시기의 상징적인 것이 백두산에 정일봉을 지명하고 “김정일화”를 정한 것이다.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인민에게 추앙되게 하는 작업은 문학 예술분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문분야에도 침투되어 학계에는 제 3기에 활동하던 학자와는 다른 젊은 학자들의 등장을 보게 된다.

김정일 우상화작업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계승발전시킨 것이 되지만 한편 김일성의 유일사상을 넘어섰다는 데서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말하

자면 김정일 격상운동은 김일성만이 유일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고 김일성주체사상을 희색화시키는 작용을 한 것이기로 하다.

이와 같이 북한은 남북한이 분단된 이후 탈스주의 레닌주의에 의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시기로 부터 전후 복구기인 천리마운동의 시대를 지나 김일성주체사상의 확립기를 거쳐 주체사상을 계승할 김정일의 우상화시기에 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북한 학계와 사상계의 4기의 발전기를 남한의 시기와 비유한다면 어떤 유사점을 찾을 수도 있겠다. 남한의 경우 해방에 이은 혼란기를 극복하면서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입작한 나라를 건설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6·25사변은 사회는 물론 경제를 완전히 마비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은 전후복구의 목표를 궁핍으로부터의 해방에 두었다. 이것이 북한의 천리마운동과 비유되는 시기라면 남한에서는 새마을운동이 전개되었었다.

남한의 경우 국민의 의식이 성장하였고 국제적인 환경 등이 작용하여 새마을운동의 성공을 국민의 업적으로 돌렸고 지도자 개인의 우상화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천리마운동의 성공을 개인의 영광으로 돌려 인민의 업적을 무시한 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속성과 인민의 민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따라서 북한은 시간이 갈 수록 체제확보를 위한 경직화의 경향을 밝게 되는 것이다.

4. 북한의 전통문화 연구

북한의 학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공계를 제외하고도 여러 분야에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것을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을 위한 작업이라는 차원에서 편의상 몇 가지 학문영역으로 대별하여 보기로 한다. 하나는 이공계의 자연과학분야를 들 수 있다. 두번째는 정치 경제 법학 철학 등을 포함하는 사회과학분야를 들 수 있다. 세번째는 사학 국문학 고고학 민속학 등을 포함하는 전통문화를 연구하는 분야를 들 수 있다. 넷째는 음악 미술 무용 등을 포함하는 예술분야를 들 수 있다.

자연과학은 순수과학이기에 이곳에 체제나 사상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이와는 달리 정치 경제가 포함된 사회과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

회주의 특히 주체사상에 입각한 특수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북한의 체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가장 적은 분야라 하겠다.

이것에 비하면 사회과학분야이면서도 사학 국문학 고고학 민속학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연구하는 국학이라는 의미에서 비록 연구방법과 사관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연구대상이 한국의 전통문화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남북한이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접근을 시도하기에 유리한 영역이라 하겠다.

예술의 경우도 국학의 경우와 같으며 국학내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음악 미술 무용 등은 사학이나 국문학보다 쉽게 대중에게 가시적으로 표현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국학에서 별도로 취급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곳에서는 북한의 국학분야나 예술분야만을 보기로 한다. 예술분야는 장을 바꾸어 보기로 하고 이곳에서는 국학을 이루는 한국사 연구 국문학연구 고고학연구 그리고 민속학연구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북한은 주체사상에 의해 국사연구에 치중하였다. 북한이 성립되던 초기에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한국사를 재편성 하였다. 이것은 백남운의 “조선사회경제사”를 토대로 한국의 역사를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투쟁의 역사로 전개시켰고 프로레타리아의 압박의 역사로 발전시켰다.

북한 역사학이 남한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많은 연구를 이룬 것이 고구려와 발해에 관한 연구이다. 북한지역과 관계가 있어 북한에서는 고구려와 발해에 관한 문헌자료만이 아니라 유물유적을 발굴하고 복원시킬 수 있는 유리한 점을 갖고 있다.

북한은 고구려와 발해를 중심으로 한국의 고대사를 기술하여 신라에 대한 해석을 남한과 다르게 한다. 말하자면 북한에서는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을 부정하고 남한에서 말하는 통일신라를 후기신라라하며 이것과 발해를 대비시켜 신라 통일 이후는 남북조시대라 한다.

이것은 발해와 신라의 두나라시대라는 것 이외에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주장하고 고구려는 대중국투쟁에서 강하게 투쟁을 전개한 주체적인 국가이고 이것과는 달리 신라는 중국세력을 영입시켜 자기 민족을 멸망시킨 대외 의존적인 나라임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현대까지 연결되어 북한은 자주적인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고 남한은 대외의존적인 신라를 계승한 나라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주체적 사관은 더욱 소급하여 고조선의 신화에서 백두산 중심의 국토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백두산 중심적 국토개념이란 우리 나라의 중심이 영 산인 백두산에 있다는 것이고 백두산이 세계의 중심산인 중국의 곤륜산의 지맥이라는 이론을 거부하는 것이다. 백두산 중심론은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한편 김일성이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던 지역이라는 것과 관련지어 김일성 우상화의 일익을 담당하기도 한다.

북한의 역사가 조선조의 역사를 인민을 착취하는 봉건지배층의 역사로 매도하여 남한의 역사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특히 현대사에서 북한은 김일성 개인과 김일성 일가를 과다하게 승격시켜 김일성 이전의 항일투쟁을 과소평가하는 왜곡된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역사는 진리를 가장 잘 대변한다고 하지만 사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론을 정당화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국학의 범위에서 남북이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가 국사라고 말할 수 있겠다.

북한에서의 문학도 앞서 본 북한 학계의 4기의 발전단계를 따르고 있다. 해방에서 6·25사변 전까지 남한에서 월북한 작가들이 활동하던 시기가 있고 이들이 숙청되면서 천리마운동이 전개되던 시기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강조하는 시기 그리고 김정일 계승을 위한 시기로 구분되며 매 시기마다 문학의 특징이 있다. 그러나 문학에서 특히 1960년대 중반이 고비가 되어 그 이전과 이후로 재분될 수 있다(권영민, 1990:52).

1960년대 중반 이전의 문학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입각한 문학과 예술 활동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은 해방후 월북한 프로레타리아 문인들이 주동이 되어 북한에 사회주의 이념을 선전하고 반봉건적 반민족적 예술활동을 저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 많은 월북작가들이 활동하였으나 대표적인 작가의 작품은 이기영의 “땅”과 “두만강”, 조기천의 장시 “백두산”, 강승한의 “한라산”, 윤세중의 “시련 속에서”, 천세봉의 “석개울의 새봄”, 황건의 “한맥” 등이다.

“땅”은 북한에서 실시한 토지개혁을 배경으로 무산계급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이들이 주체가 되는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묘사한 것이다. “두만강”은 우리 나라 근대사에 흐르는 민중세력의 성장과 민중의 자주성을 구현화시킨 작품이다(권영민, 1990:54).

“백두산”은 백두산의 영웅적 형상을 찬양한 시로 이것이 민족이념을 제사

한 것이다 된다. “한라산”은 집단적 의식을 통해 투쟁성을 강조한 것이다. “시련 속에서” “석개울의 새봄” “한맥” 등도 사회주의 체제의 성립과정을 묘사한 것들이다(권영민, 1990:54).

초기에 주역을 담당하던 월북작가들이 6·25사변 후 숙청을 당하고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이른바 “주체의 문예이론”에 입각한 문학작품이 나오게 된다. “주체의 문예이론”이란 말하자면 자기 인민의 정서와 감정에 맞게 문학 예술을 창조하여 자기나라 혁명과 자기나라 인민을 위해 적극 복무하는 문학 예술을 전설하는 것을 말한다(권영민, 1990:56).

주체의 문예이론에 입각한 대표적인 작품이 “꽃파는 처녀”, “피바다”, “한자위 단원의 운명”, “조선의 노래” 등이다. 이들은 이를테면 인민 대중의 계급적 의식을 고양하고 혁명적 세계관에 의해 투쟁에 참가하는 작품들로 사회주의 문학 예술의 대표작들인 것이다.

김일성 개인을 찬양한 작품이 많으나 그중 대표적인 소설이 “불멸의 역사”이다 이것은 항일혁명문학예술의 표본으로 “피바다” “꽃파는 처녀” 등과 같이 혁명가극, 혁명 영화 등에 재창작되어 인민들에게 널리 보여지는 대작이다.

1980년대 이후 두드러진 문학계의 경향은 김정일에 의한 혁명계승의 찬양과 남한에 대한 비판적 작품이 출현하는 것이라 하겠다. 김정일을 소재로 한 소설에 “아끼시는 마음”(1984), “다시 쓴 논문”(1984), “대지”(1985), “영생”(1985), “안녕”(1987), “사랑의 샘”(1988), “눈부시다”(1988) 등이 있다. 이런 작품에 묘사된 김정일은 온후한 성품의 소유자로 자상한 지도자상을 갖는다. 이들 작품에서는 김정일이 주인공을 도와주는 간접적 표현법으로 묘사되는 것이 특색이라 하겠다(권영민, 1990:69).

남한을 비방하는 작품으로 “봄우뢰”(1984), “행진곡”(1988), “량심의 길”(1988) 등이 있다. “봄우뢰”는 광주사건을 배경으로한 작품이고 “량심의 길”은 대학생의 노동운동을 묘사한 것이다. 이 이외에도 “저주”(1981), “단죄한다 매국 역적들”(1984), “괴의 부름”(1985), “괴흘린 땅에 자유는 오리”(1988), “정해진 운명”(1989) 등은 남한의 정치 현실을 비난하는 작품들이다(권영민, 1990:71).

문학의 경우 북한은 남한에 비해 국가의 목적과 당의 정치적 지침에 의하여 묘사되는 선전적 성격이 특색이라 하겠다. 따라서 북한의 문학과 예술은

순수예술적 차원을 추구하는 남한의 것과 크게 대조적이며 무엇보다 “주체의 문예리론”이 내세우는 인민의 정서와 감정에 맞는 민족적 형식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미학보다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구현하는 혁명적 문예형식이 되어 남한과의 거리는 더욱 멀어진 것이라 하겠다(권영민, 1990:56).

북한이 이룩한 큰 업적의 하나가 고고학분야의 업적이라 하겠다. 유물의 발굴에 의한 고고학 연구는 민족문화를 고양하는 과정의 하나이며 북한도 이에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6·25사변 이후 복구기에 고고학도 전성기를 맞는다. 그리고 주체사상이 고양되면서 고고학도 주체사상을 응호하는 학문으로 변하게 된다.

북한 고고학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면 전기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평남 상원군 통곡리의 검은모루유적과 통곡동굴유적을 들 수 있다. 검은모루유적에서는 30여종의 포유동물의 뼈가 발견되었다. 검은모루유적은 60만년에서 40만년 전의 시기에 해당되고 통곡동굴유적은 50만년에서 40만년 전의 것으로 사료된다(임효재, 1990:106).

중기 구석기의 대표적 유물은 평남 덕천군 승리산의 유적과 굴포리 유적 1기층의 유물에서 볼 수 있다. 승리산 유적에서는 이른바 “승리산인”이라는 인골이 발견된 바 이들은 4만년에서 5만년 전에 생존하였다.

후기 구석기 시대의 유물은 평양시 만달리에서 발견된 포유동물의 유물을 말한다.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에는 형생종이 11종이나 되었고 사멸한 종은 2종이었다. 이곳에서 발견된 인골을 “만달인”이라 한다. 이들은 후기 구석기의 전형적인 석기인 쇄기형 석기를 사용하였다(임효재, 1990:111).

신석기 유적은 훨씬 널리 분포되어 있다. 신석기 전기에 속하는 유적지로 함남 웅기군 굴포리 서포항 유적지, 부포리 덕산유적, 평남 온천군 궁산유적 1기, 황해 봉산군 지탑리유적 1기 등이 있다. 신석기 중기에 속하는 유적은 서포항유적 3기, 지탑리유적 2기, 오덕리, 암사동, 궁산 2기와 3기, 세죽리, 금탄리 1기, 동삼동 등이다. 신석기 후기에 속하는 유적은 서포항 4기와 5기, 농포동, 무산 호곡동, 궁산 4기, 평양시 남경 1기와 2기, 통당포, 장촌, 금탄리 2기, 토성리, 장성리, 신암리, 통연리 등이다(임효재, 1990:115).

이들 신석기 유적을 정리하면 대동강과 황해도를 하나로 하는 중부지역, 압록강 유역을 하나로 하는 서북지역 그리고 두만강과 함경도를 하나로 하

는 동북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북한에서는 청동기시대를 4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있다. 이를테면 평양지역, 서북한 및 요동지역, 암록강과 송화강 중상류지역 그리고 두만강을 중심으로 한 동한지역이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청동기의 개시에 관한 남북한의 의견차이이다. 북한에서는 청동기 개시 시기를 남한보다 약 1천년 상한한다고 한다. 이것은 남한과 북한이 문화발전을 보는 시각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남한에서는 신석기 말과 청동기의 초기가 비연속적이라는 견해에 대해 북한은 이것이 연속적이고 자체적인 발전에 의한 것이라 한다. 이에 따라 남한은 청동기의 시작을 무문토기의 발견과 연결을 시키고 북한은 후기 신석기에 이어 청동기가 시작되었다는 주장이다. 청동기의 하한도 남한은 철기의 시작에 두고 북한은 고조선 부여 등 고대국가가 출현하는 기원전 1천년으로 설정하고 있다(임효재, 1990:119).

고고학의 경우 남한과 북한의 상반된 의견의 차이는 고대사와 선사시대를 보는 사관의 차이에서 유래되는 것이지만 남북한 공히 유적을 직접 답사하지 못하고 유물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는 데서 의견차이를 보이는 면도 있다.

남한에서나 북한에서 민족적 기반을 언급할 때 문제가 되는 영역이 민족학 분야라 하겠다. 북한은 남한과 달리 처음부터 국가적 후원에 의하여 민족학을 연구하였으나 예컨데 무속을 사회주의적 견지에서 미신으로 규정하여 모두 없애고 선별적인 분야에서만 민족의 연구와 민족의 보존을 장려한 것이다. 민족학의 경우에도 북한의 경우 이른바 주체민족학이 성립되기 이전과 그 후의 것에 차이가 있다.

주체민족학이 성립되기 이전의 시기에서 민족학은 고고학과 더불어 전통문화를 연구하는 분야로 “고고학 및 민족학연구소”에 소속되었으며 민족학 내에 미술사 음악사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민족학이었다.

이 시기의 연구업적으로 열거 할 수 있는 것이 황해도 봉산탈춤의 연구와 북청지방의 민속놀이 등과 민간오락 세시풍속 등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이것보다 특이한 연구는 함경도의 재가에 대한 연구이다. 재가승은 별도의 집단을 이루고 사는 여진족을 말하며 이들의 생활을 통해 고대사회의 단면을 재구성 할 수 있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사회주의 건설과 관련된 의도적 연구로는 생산활동과 생산풍속에 관한 것을 연구한 것이다. 예컨데 두레나 항도에 관한 연구가 협동농업의 생

산양식을 위한 연구였고 호미 등 재래 농기구에 대한 연구 쌍명에에 관한 연구 등이 생산용구에 관한 연구의 대표적인 것이었다.

한편 농업 이외에 수렵 어로에 관한 연구와 특수 수공업으로 예컨데 풍청리 련천 수공업에 관한 연구나 함북 회령군 산간지방의 목공업 등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다. 이들 민속학연구는 현지를 답사하여 구체적인 민족지를 서술하는 것이 주된 연구였다.

다른 학문의 영역에서의 시대구분과 같이 1960년대 전반기 까지의 제전시기에 민속학 연구도 활발하여진다. 이 시기의 민속학 연구는 다음과 같이 몇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시기 민속학의 첫째 특성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실학파에 관한 연구이다. 예컨데 “지봉 리수광이 조선민속학분야에 남긴 유산”(1961), “성호 리익이 조선민속학분야에 남긴 업적”(1962), “연암 박지원이 남긴 조선민속학의 고귀한 유산”(1961) 등이다. 이것은 민속학의 원류를 조선조까지 소급시킨 업적이라 할 수 있다(주강현, 1991:67).

두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고대 민속에 관한 연구이다. 예컨데 “예맥조선에 관하여”(1962), “고조선의 종족에 대하여”(1963) 등과 같이 문헌자료를 통하여 고대사회 종족들의 민속을 연구하여 고대사회와 현대를 연결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특히 예맥족의 연구는 주체사상을 확립하는 작업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주목된다(주강현, 1991:68).

세번째 영역이 사회생활중에서도 혼인과 가족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그리고 의식주에 관한 연구와 구비전승에 대한 자료수집이 있었다.

북한 민속학의 경우 약 10년의 학문적 공백기가 있었고 이어 주체민속학이라 할 수 있는 주체사상에 부합되는 민속학이 성행하게 된다.

주체민속학은 민속에서 미풍양속을 강조하는 것이 특색이다. 예컨데 “금강산 일대의 아름다운 풍속”(1986), “전래의 미풍양속은 우리 인민의 귀중한 민속유산”(1987), “조선전래의 미풍양속”(1981) 등과 같이 민족이 계통적인 성격을 갖게 한 것이다.

생활풍속에 관한 연구는 현대적인 것보다 고대 문헌에 의한 연구가 활발하여 진다. 이를테면 “고려시기 풍습연구”(1983), “삼국시기의 혼인풍습”(1986), “중세 등불놀이에 관한 연구”(1984), “팔관회에 대한 약간의 고찰”(1987) 등에서 보는 것과 같이 민속연구가 과거로 소급하는 것이었다.

의식주에 관한 연구에서는 서북 산간지대의 주택에 관한 연구, 전통적인 식생활에 관한 연구 무덤에서 나온 옷을 갖고 옛 옷을 연구하는 논문들이 나왔다. 그리고 고구려의 금속공예, 고려의 금속공예 조선조의 수공업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주강현, 1991:83).

주체민족학이 미풍양속을 선양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라 한다면 북한의 민족학은 노동 협동 등을 고양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연구나 의식주 물질문화 생산용구 등의 연구에 치우친 것이 특성이다. 그리고 민족학이 역사학의 일부로서 고대와 과거의 풍속을 연구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하겠다.

북한의 민족학이 의도적인 면이 강하고 인민과 노동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남한의 민족학과 크게 상충되는 영역이 적다 하겠다. 오히려 민족학은 국학의 어느 분야보다 남북이 공동작업을 행하기에 유리한 영역이라 할 수 있겠다.

5. 북한의 예술

북한의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 예술의 특색은 창작성이나 신비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당에 예속된 예술이라는데에 있다. 정치에의 예속성은 학문보다 예술분야가 더하며 모든 예술은 당 특히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지도와 지시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무엇보다 1960년대 이후 주체사상이 성립되면서 음악은 주체음악 주체미술 주체무용으로 발전한다.

북한 예술의 특징은 사회주의적 내용을 민족적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내용에는 당성, 계급성, 인민성 그리고 혁명성이 가미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남한의 현대무용을 자본주의와 상업주의에 물들은 퇴폐적인 것으로 생각하듯 예컨데 음악에서 서구 음악은 부르조아적이고 현대음악은 반인민적이며 째즈음악은 퇴폐적이고 국악에서도 정악은 부르조아적이며 판소리는 인민이 좋아하지 않아 배척하는 것이다. 북한에는 따라서 주체적인 것만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민경찬, 1990:418).

주체예술의 특성을 음악분야에서 보면 이런 것이다. 첫째 들 수 있는 것이 음악의 종자이론이다. 이것은 음악의 창작과정에 신비성을 배격하고 목적의식이 뚜렷하여야 하며 사상적 알맹이가 뚜렷한 좋은 종자를 키우면 이

것이 합목적적 성과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음악의 전형화이론이다. 이것은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형적 인물을 선정하여 그를 예찬함으로서 주체사상을 보급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론에 입각하여 음악은 김일성을 예찬하고 더 나아가 그의 부친 그의 모친 그의 부인 그의 아들 등을 전형적 인물로 하여 이들을 예찬하는 것이다.

셋째는 음악의 속도전이다. 이것은 종자이론에 의하여 바로 잡은 창작가들에게 보다 빨리 보다 훌륭한 작품을 제작하도록 창조적 열정을 고무하며 이러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협작하는 집체작이 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속도전과 집체작을 잘 표현하는 것이 5대 혁명가극이다. 북한이 자랑하는 5대 혁명가극이란 “피바다”, “꽃파는 처녀”, “랑의 참된 딸”, “밀림아 말하라”, 그리고 “금강산의 노래”이다. 이들은 혁명연극을 가무화하고 가극화한 북한 예술의 종합적 정점을 이루는 것이라 하겠다.

넷째는 음악의 군중예술론적 성격이다. 군중예술론이란 예술 창조의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군중 또는 집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음악도 독창곡보다 합주곡이나 중창이어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영생주의 예술론이다. 이것은 예술 작품에서 영생에 이르는 길이 신이 아니라 김일성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김일성은 신격으로 우상화되는 것이다.

여섯째는 음악의 통속화이론이다. 이것은 군중예술론과 유사한 것으로 말하자면 음악은 인민이 이해하기 쉽고 인민을 위한 것으로 평이하고 통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인경찬, 1990:420).

이러한 북한 음악의 특성은 비단 음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술에 있어서도 이를테면 1966년의 교시 내용에 포함된 “우리의 미술은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는 참다운 인민적 미술로 되어야 하며, 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혁명적인 미술로 되어야 한다”는 것과 같이 정치적인 체제와 이념의 시녀인 것이다(이구열, 1990:225).

무용에 있어서도 김일성 동지의 혁명한 령도와 적접적인 지도 밑에 혁명과 건설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혁명적 무용을 “황금의 예술”이라 하는 것이니 무용이야말로 주체예술의 근간이 되는 것이며 5대 혁명가극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이상일, 1990:11).

6. 남북교류 방안—예술분야

학술과 예술분야에서 남북한이 상호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호간의 거리를 확인하며 상호간의 접근을 시도하는데 보다 유리한 것이 예술분야라 하겠다. 예술은 학문보다 가시적인 면이 강하고 예술은 감정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유리한 분야이다.

음악의 경우 실은 남과 북의 음악인들 사이에는 이미 교류가 있었던 것이다. 첫번째 교류로 들 수 있는 것이 1985년 남북한 고향방문단의 교환이 있었을 때 서울과 평양에서 예술단이 공연을 가졌었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시도로 끝났으나 1988년 독일에 주제하는 윤이상의 남북합동음악축전 제의가 있었고 이어 예총회장 전봉초의 남북예술대축전의 제의가 있었다. 이것은 주최권과 장소 내용 등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무산되고 말았다.

세번째는 1990년 10월 평양에서 개최된 범민족통일음악회에 남한을 대표하여 황병역을 주도로 14명의 음악인이 참가한 것이다. 이것은 첫번째 교환 공연과 달리 한 곳에 주최자가 있고 한편이 이에 찬동하여 이루어진 공동 공연이었다. 이것에 대한 답례 형식으로 1990년 12월 서울서 개최된 송년 통일음악회에 북한 대표가 참석하였다.

네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1991년 4월 일본의 후쿠이시(福井市)에서 개최된 활동해 예술제에 남한과 북한이 참가하여 합동공연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음악분야는 예술분야에서도 가장 접촉이 많았던 분야로 남북교류의 선구적인 분야라 하겠다. 음악분야가 이렇게 남북교류를 이룰 수 있었던 데는 남과 북이 음악에 있어 무대와 공연에서 더하고 못함이 없다는 자신감이 있었고 상대방의 감정에 호소하기가 용의하였으며 또한 독일의 음악가 윤이상의 중계역 할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과 북이 음악무대의 교류를 통하여 상대방의 기술과 의모는 파악할 수 있었으나 예술이 내포하는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 차원에 이르면 음악에서도 남북의 교류가 낙관적인 것 만은 아니다. 지난 1990년 제2차 남북 이산가족 상호방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주제인 이산가족과 관계가 없는 부제인 무대공연을 놓고 남북대표가 심한 토론

을 벌였고 이것이 결렬되어 결국 제 2 차 남북 이산가족 상호방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이 문화교류를 추진할 때 첨단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음악이라 할 때 음악의 교류를 계속 추진하여야 함은 물론 음악교류에 있어 세가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는 음악의 내용이다. 현재까지 남북한은 주로 우리 나라의 음악을 보여주는 형식이었다. 이제 음악을 현대음악 서양 고전음악까지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한은 상호 발전시켜 온 특수한 음악의 형식과 내용을 이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자기의 음악을 수용하게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을 말한다.

셋째 남북한은 우리 민족 고유의 음악적 특색을 찾는 작업을 진전시켜야 할 것이다. 예컨데 우리 나라의 고유한 음악은 일제시대를 경과하면서 일본식 음악법으로 강요를 당하였고 해방 이후에는 서양음악에 압도되어 서양적 기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서양적인 것에 의해 이중적 왜곡을 당하고 있다. 남한의 경우 서양적인 것을 소화하느라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적인 것을 도외시한 누를 범하였다. 이에 비하면 북한은 일제적 유산을 극복하는 작업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다고 소련식 음악을 흡수하느라 노력하였고 다시 주체주의적 예술이라는 명목하에 군가적인 일제적 기법을 강요하게 된 것이다.

우리적인 것에서 멀어지기는 남과 북이 같은 것이었다. 우리는 민족적 주체성을 회복하여야 하고 이것이 통일의 목적이라면 예술에서 특히 음악에서 그러한 노력을 다른 분야에 앞서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미술분야에서도 같다. 미술의 경우 1991년 5월 국제고려학회 주최로 북경에서 남북한 서화전과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남한에서는 서예 동양화 서양화 도합 45점을 출품하였고 북한에서는 유화 조선화 등 27점을 출품하였다. 세미나에는 남한에서 28명이 참석하고 북한에서는 10명이 참석하여 진지한 토론이 있었다.

미술의 경우 음악보다 비교가 되지 않게 남북한의 교류가 있었으나 미술도 남한과 북한에서 직접 전시회를 할 수 있고 서울과 평양에서 전시회를 할 수 있다.

7. 남북교류 방안—학술분야

예술분야에 비해 학술분야는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음악에서와 같이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러가지 내용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첫째로 고려되어야 할 분야가 자연과학분야로 이 영역에는 사상이나 체제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며 다만 배경과 수준의 차이만이 있기 때문에 남북간의 학술교류에서 가장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일 것이다.

구체적인 교류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남과 북이 교대로 학술 토론회를 갖는 것이다. 예컨데 물리학회 전국대회와 같이 학술발표회를 남과 북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술발표회를 거듭함으로서 지식을 교환하고 상대방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주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자연과학에서 꼭 행하여야 하는 것이 분단국의 유산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휴전선을 따라 양쪽이 2킬로씩 물러나 설정한 비무장지대를 남북의 학자가 공동으로 연구하고 연구를 위해 영원히 특수지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비무장지대 생태계 연구는 남북한 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연구를 할 필요도 있다.

자연과학에 비한다면 사회과학 분야는 사관과 국가관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체제와 관련된 것이기에 남북한 학자간의 교류나 대화가 용이한 분야가 아니다. 사회과학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 국학까지를 포함한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걸친 학술회가 2차나 시도된 적이 있었다. 하나는 1990년 8월에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개최된 제 3차 조선학 국제학술토론회였다. 이것은 일본의 조종련계인 경법대학에서 주최한 것이기에 북한에서 120명의 학자가 참가할 예정이었고 남한에서의 참가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정되었다. 그러나 대회에 실제 참가한 것은 예상과는 달리 북한에서 10여명 남한에서 70여명이 참석하였다. 남북학자가 대거 접촉하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양쪽 학자들은 호기심에 찬 정보교환에 중점을 두었지 침다운 학술토론은 부진한 편이었다.

두번째 기회는 1991년 8월 연변대학이 주최한 조선학 국제학술 토론회였다. 이곳에서 처음 북한 학자 17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는 3명만이

참석하였고 남한에서는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일본에서나 중국에서 개최되는 조선학학술대회는 친북한계인 조총련이나 중국이 주최하는 학술대회지만 북한은 그간 극히 소극적으로 참석을 회피하였고 오히려 남한 학자들은 적극적이었다. 이것은 내용과 체제의 두가지 면에서 북한이 불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국학분야를 제외한 인문사회과학에서 남북이 학술교류를 할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국제적 협력에 의한 국제학술대회의 형식이 유리할 것이다. 일본과 중국에서 개최한 학술대회가 국제학술대회의 기준에 이러한 학술대회가 부진하였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이다.

인문사회과학 중에서도 앞서 본문에서 보아온 국학분야를 별도로 하여 남북간에 학술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곳에 언급한 국학은 한국사, 국어국문학, 고고학 그리고 민속학이었다.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한국사에 관하여는 남북간의 의견의 차이가 넓다. 한국사보다 간격이 넓지 않은 것이 국문학이고 보다 간격이 좁은 것이 고고학이며 간격이 가장 좁은 영역이 민속학이라 하겠다.

국사학 국문학 고고학 민속학 등이 학문의 성격상 남북간의 간격에 차이가 있었지만 이들은 국학이라는 의미에서 하나의 영역으로 묶을 수 있고 인문사회과학에서 특별히 취급하여야 한다. 그것은 이들이 국학을 형성하기 때문에 한국적인 것을 취급하는 학문이고, 한국적인 문화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동질성 회복에 보다 유리하며, 남북간의 학술교류의 궁극의 목적인 통일 중에서도 의식적 단일화를 실현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국학이기 때문이다.

국학에 있어서 남북간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은 첫째 남북한이 과거 이룩한 학문적 자료를 직접 교환하는 것이다. 북한의 자료가 모두 공개되고 개방되는 것과 같이 남한의 업적이 빠짐없이 북한에 소개되어야 한다.

두번째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남북한이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것이다. 국사학이나 국문학에서도 그러하여야 하지만 무엇보다 고고학과 민속학 분야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단과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남과 북의 유적지와 특정 조사지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조사하는 것이다.

셋째 방법은 국학계 모든 분야에서 공동 학술회 발표회 토론회 등을 남과 북이 교대로 주최가 되거나 남과 북을 왕래하면서 개최하는 것이다. 마치

남북총리회담이나 남북 적십자사 회담과 같이 남북이 상호 왕래하면서 학술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넷째 방안으로는 남북이 주최가 되지 않는 국제학술회의를 국학에 한하여 보다 자주 개최하는 것이다. 이곳에 일본의 조총련 민단계 학자나 중국의 교포학자만이 아니라 한국학을 전공하는 일본인 중국인 미국인 러시아인 등 여러 나라의 학자들을 동참시키는 일이다.

이러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남한과 북한은 직접교류와 간접교류를 행함으로서 상호간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호간의 간격을 확인하며 그 간격을 좁히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8. 결 론

음악분야를 설명하는 곳에서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우리는 분단의 역사보다 동질의 역사가 긴 과거를 갖고 있다. 유구한 문화전통이 일제시대를 경과하면서 식민지사관을 갖게 되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왜곡하게 되었다. 일제 식민지사관으로부터의 탈피를 남한에서는 서구식 방법으로 그리고 북한은 소련식 방법으로 추구하였던 것이다. 남한은 서구식 방법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으나 북한은 주체주의로 흐르면서 남한과의 거리는 더욱 멀어지게 되었다.

우리에게 놓여진 과제는 학구적인 태도로 남과 북의 간격을 좁히며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한 우리 민족문화를 재창조하여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작업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곳에 학술분야를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그리고 국학분야로 나누어 특히 국학분야와 예술분야에서 북한의 현상과 특성을 보았고 남과 북이 간격을 좁히기 위한 교류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이러한 남북간의 학술교류의 방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학술교류에 앞서는 기본적인 태도일 것이다. 북의 것이 시대착오적인 주체사상에 입각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실체를 이해하는 것 못지 않게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는 사항과 조건까지 이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남한의 문화를 퇴폐니 반민족적이라고 매도하는 북한의 학자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 이념이 봉괴한 오늘날 북한보다

남한의 학자가 보다 넓은 아량과 인내로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남과 북이 서로의 장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모두가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고정우

1962, 조선구전문학연구, 평양: 과학원 출판사.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88, 조선의 민속놀이, 서울: 푸른숲.

권영민

1990, 북한 문화의 현황과 그 특성, 북한 문학예술 연구의 방향, 47-94.

권영민 외 7명

1990, 북한 문화예술·연구의 방향,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김배창, 선화창

1986, 조선의 민속,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김문환

1990, 북한 연극의 특징: 체계적 접근, 북한 문화예술 연구의 방향, 305-350.

김열규

1990, 북한 민속 및 민속예술의 현황에 관한 연구, 북한 문화예술 연구의 방향, 233-304.

김일출

1958, 조선 민속 탈놀이 연구, 평양: 과학원 출판사.

김학준 외 7명

1986, 남북의 생활상—그 삶의 현주소, 서울: 박영사.

리동원

1982, 조선 구전문학 2,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리철호

1987, 고대 건국신화와 전설,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민경찬

1995, 북한 음악의 실상, 북한 문화예술 연구의 방향, 413-470.

민족문화사연구소

1991, 북한의 우리 문학사 인식, 서울: 창작과 비판사.

박명진

1990, 북한 영화의 특성과 그 실태, 북한 문화예술 연구의 방향, 357-412.

손봉숙, 이경숙, 이은죽, 김애설

1991, 북한의 여섯생활, 서울: 나남.

선희창

1987, 조선 풍속사 2. 평양: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신영돈

1967, 우리나라의 탈춤놀이, 평양:국립출판사.

윤미량

1991, 북한의 여성정책, 서울:한울.

이구열

1990, 북한의 미술: 그 체제종속의 실상, 북한 문화예술 연구의 방향, 179-232.

이상일

1990, 북한 현대무용에 관한 비판적 접근, 북한 문화예술 연구의 방향, 5-46.

이온죽

1988, 북한 사회 연구—사회학적 접근, 서울:서울대 출판부.

임효재

1990, 북한의 유적 유물 연구실태 분석, 북한 문화예술 연구의 방향, 95-178.

주강현

1989, 북한의 민속학—재래 농업과 농기구, 서울:역사비평사.

1991, 북한 민속학사, 서울:이론과 실천.

한용원

1989, 북한 연구, 서울:박영사.

홍기문

1964, 조선신화연구, 평양:사회과학원 출판사.

황철산

1960, 함경북도 북부 산간부락(재가승북락)의 문화와 풍속, 평양:과학원 출판사.